

동구, 세외수입 혁신사례 ‘우수기관’ 선정 영예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지난 11월 8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시흥시에서 열린 ‘2007 전국 세외수입 혁신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2007년도 세외수입 우수 혁신사례 발표대회’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공동 주관으로 전국 시도, 시군구 등 관계공무원, 세외수입업무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동구는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프로그램 전환을 통한 세외수입증대방안’이란 주제로 대전시 대표로 참가해 기관표창과 100만원의 부상을 수상했다.

특히, 구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프로그램을 지난해 8월부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으로 전환, 외주 프로그램 유지비와 대물, 대인으로 분리해 발부하던 고지서를 통합 발행함으로써 창의성, 실용성, 세입증대효과 등의 항목 평가에서 큰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편 5회째인 이번 대회는 각 광역자치단체 주관으로 자체 예선대회를 거쳐 엄선된 우수사례로 16개 시도가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열띤 경쟁을 벌였다.

임헌백 세무과장은 “이번 상을 계기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재정 확충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주민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착착’



▲ 지난 11월 22일 동구 주민들의 축구공원으로 활용될 인조잔디구장이 용운동 대전대학교내에 조성됐다

대전 동구(구청장 이장우)가 주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높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동구 용운동에 동구 지역 주민들의 축구공원으로 활용될 인조잔디구장이 국제적인 규격에 맞춰 대전대학교내에 조성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인조잔디구장은 국민체육기금 등을 포함한 7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105m×68m의 세계 축구 규격을 갖춘 축구장으로 향후, 각종 축구대회는 물론 주민들에게 휴식과 여가시간 활용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구는 대전대 인조잔디구장을 동구 축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9억여 원을 투입 육상트랙 과 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 10월에는 족구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 남부순환고속도로 대별교 하부에 450만원을 들여 16m× 7m 규격의 족구장 2면을 설치했다.

한편 오두식 체육담당은“최근 주5일제 근무 등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앞으로도 주민들의 체육수요에 맞는 여건 조성으로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동남부권 지역개발사업 본격화



▲ 대전 동구청과 대한주택공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 동구청에서 동남부권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대전 동구가 동남부권의 신시가지 개발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1월 30일, 오전 10시 동구 혁신토론포에서 이장우 동구청장, 신 열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남부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 주요내용은 동남부권에 대한 개발계획, 기본구상, 수요타당성 분석, 개발지역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의료용지 확보 계획 수립 등이다.

특히 동구는 동남부권 개발예정지 중 한 곳에 가오지구 신청사 부지 선정으로 인한 대체의료용지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대전시에 의료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협약 체결로 이미 완료된 3개 지구(가오, 낭월1공구, 용운지구)와 판암2, 판암2, 가오2, 대별, 대성2, 이사지구 등 6개 지구 일원에 135만㎡ 동남부권 개발사업이 2013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또 동남부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침체일로에 있는 원도심 지역과 연계한 종합적 도시개발로 자족적인 신도시 개발이 예상되며,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기양·자양·용운동 일원의 대학로 조성과 더불어 동남부권 개발이 향후 동구 발전의 삼각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동남부권은 그동안 도시철도, 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계획적 종합개발 필요성이 부각돼 왔다.

자매결연도시 서령시 대표단 중구청을 방문

-오는 11월 5일 왕현 부시장외 4명 방문 상호 우호협력 교류 시간 가진다-

c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이은권)에서는 지난 97년 10월 중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청해성 서령시의 왕현 부시장외 4명의 대표단이 오는 11월 5일 대전 중구청을 방문하여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진다.

이들 중국 청해성 서령시 방문단 일행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방한 방문단이 5일 오후 12시에 중구청에 방문한다.

이은권 중구청장과 서령시 방문단 일행은 구청장 집무실에서 교육분야, 의료서비스 분야, 전통문화분야 등에 대하여 상호 우호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다.

이들 일행은 구청장과 간담회에 이어 방문기념을 촬영하고 구의장실에서 구의원 10명이 배석한 가운데 의회차원 교류방안을 협의하고 세이백화점, 대흥동 지하상가를 견학한 후 구에서 마련한 환영만찬을 함께한 후 하루의 일과를 마친다.

중구청과 자매결연 도시인 중구 청해성 서령시는 청해 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시 전체의 면적은 7,621km², 인구는 198만명으로 중구청에 비해 면적은 124배, 인구는 7배 정도로 큰 도시다. 이곳은 황하의 발원지로

동서에 흐르는 황수에 둘러싸여 있다.

92년 7월 내륙개방도시로 지정되어 10여개가 넘는 간선도로가 서령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교통의 편리성에 의해 개방 이래 구미 홍콩, 마카오 등 10여개 국가에서 81개의 외국 투자기업이 유치되어 있다.



중국청해성서령시방문단

중구, 전국 최초 손재주가 뛰어난 주민들의 창조적 실험공간 웰컴투챌린지숍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가 전국 최초로 손재주가 뛰어난 주민이 직접 만든 창의적인 각종 예술품 및 발명품 등의 전시·판매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작품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또는 취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웰컴투챌린지숍을 2008년 1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이를 향후 지역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챌린지숍(challenge shop)이란 본래 일본에서 빈점포를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창업의지가 있음에

도 점포를 구하기 어려운 업체를 발굴하여 저가로 점포를 지원해 주거나, 좋은 상품을 생산함에도 판로확보가 어려운 업체에 일정기간 독립매장을 제공하여 판촉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를 뜻하는 용어로 국내에서는 롯데백화점에서 업계 최초로 좋은 상품을 생산, 판매하면서도 인력이나 판촉활동 부족으로 백화점 입점이 쉽지 않은 식품분야 등의 중소기업들에 기회를 주기 위한 용어로 사용 되어왔다.



중구에서는 챌린지숍 용어를 경제환경 등의 변화로 사회진출 통로가 더욱 좁아진 미술, 의상계열 전공학생 및 손재주가 뛰어난 일반주민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상자형 선반(Craft), 액세서리 전시대(Jewelry), 의류전시대(Fashion), 와이어 전시공간(Art)을 일정기간 제공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주민에게 PR하고 동시에 작품판매를 대행하여 판매수익금을 챌린지숍 사용자에게 계좌 입금하여 작가들의 자신감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실험공간을 뜻하는 용어로 재정의 하고 “옛 명성을 회복하고 문화의 향수를 찾아 중구

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구 브랜드 슬로건과 연계하여 웰컴투챌린지숍이란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구에서는 그 동안 챌린지숍 사업을 위한 챌린지숍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등 관련 근거를 제정하였고 현재 지하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챌린지숍 인테리어 공사발주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챌린지숍의 사업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학교 및 기관에서 추천한 우수학생(작가)의 작품을 출품받아 3개월간의 무료 시범운영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챌린지숍 개소가 공교롭게도 방학기간에 이루어져 초기 사업홍보 및 작품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발빠르게 관련 학교 등을 사전 방문하여 홍보한 결과 학생들로부터 기대 이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중구 원도심의 대표적 지역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챌린지숍이 주민들의 무한상상력과 창의적인 창작품 전시공간으로 활용되어 주민들의 취업 및 창업에 일조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원도심의 밤거리가 찬란한 빛의 향연에 젖어듭니다. 루체페스타 개최
- 은행동, 대흥동, 지하상가 등 동시에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빛의 축제가 열린다 -

빛의 향연인「웰컴투 중구 루체페스타」가 전년도에 이어 2회째로 젊음과 낭만이 있는 은행동, 대흥동, 지하상가 등에서 금년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축제가 펼쳐진다.

금년에 개최되는「웰컴투 중구 루체페스타」는 원도심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구) 중구청사부지에서 민자유치에 의한 조성될 주차장·공원조성 사업 기공식과 함께 진행된다.

이번 21일(금) 오후 6시에 (구) 중구청사부지에서 갖는 개막식은 이은권 중구청장, 이운우 구의장, 시의원, 구의원 및 각급기관단체장, 번영회, 주민 등 5,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갖는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는 식전 행사로 이미테이션 댄스공연, 가요제가 진행되고, 본행사로 기념식과 루체페스타 점등식, 주차장 조성사업 기공식, 불꽃놀이가 진행되며 식후행사로 초대가수(슈퍼주니어, 트랜스픽션, 제노, 더더밴드)의 공연과 가요제 2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원도심 상권회복과 세계일류의 명품거리로 도약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축

제는 문화행사가 겸비된 고품격의 빛 축제를 위하여 축제기간중 번영회별로 풍성한 문화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중구청(구청장 이은권)과 3개 번영회에서는 원도심을 전국 제일의 젊음과 낭만이 있는 찾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되돌아오는 중구를 실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치러지는 루체페스타는 이탈리아 말로 “빛의 향연”이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



제회 응봉정이 루미나리에 빛의 대축제

중구가 교육 중심구로 거듭나고 있다!
- 2007년도 대성고 15명 대전최다 서울대 합격, 대전고, 동산고, 중앙고 등 명문고교 전통이어 -

대전시 중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서울대 합격률이 최상급으로 나타나 새로운 교육의 중심 학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중구 목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는 2007학년도 대입시에서 서울대에 15명이 합격하여 대전에서 최다 합격률을 보인데 이어, 올 2008학년도 1차 수시합격자 발표에서도 서울대에 8명이 합격하여 대전에서 최다 합격자를 기록해 대전의 명문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성고는 2007학년도에 명문대인 일본 공대(2명), KAIST(3명), 육군사관학교(2명), 공군사관학교(1명) 연세대(2명), 고려대(7명) 등에 합격하였다. 그 외에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성균관대 등 18개 서울 주요 대학에 71명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전고등학교에서도 2007년도에 서울대 8명, 연·고대 17명 등 수도권 대학에 75명이 합격하는 실력을 보여 명문의 전통을 이어갔다. 대전고는 주요대학의 안정적인 진학을 위해 진학 클리닉 시스템과 연중무휴 기숙사를 운영하여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성취목표와 학습역량을 강화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고 있다.

중촌동 소재 중앙고등학교는 의학계열 대학에 18명을 합격하여 대전시 최다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대전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환경, 학업성취도, 학생·학부모 만족도, 교사 지도 능력, 학교

운영 전반적인 평가에서 2007·2008학년도 학교평가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의학계열 명문 고등학교로 부각되고 있다.

문화동 소재 동산고등학교도 2007학년도에 서울대에 7명을 합격시킨데 이어 올해에도 1차 수시합격자를 4명이나 배출했다.

이밖에 서울대에 부시동 남대전고등학교 2명, 여자고등학교는 선화동 호수돈여자고등학교(2명)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중구 지역이 이처럼 대학입시에서 대전 지역 다른 구 고교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며 교육의 중심 메카도시로 자리 잡는 것은 목동과 문화동 등에 새로운 명품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입과 더불어 교육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학업성적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대전지역 최초「아파트 담장이 없어졌다」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열린 공동체 문화 형성 기대

서구지역에 대전지역 최초로 아파트 담장이 사라졌다. 이웃간의 문화 단절로 대변되는 아파트 담장이 사라지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구는 생활주변에 나무 식재로 푸르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지역에서는 최초로 둔산동 수정타운아파트 담장을 없애고 생활녹지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아파트 담장 없애기는 둔산동 수정타운아파트 담장 260m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조경석과 꽃나무, 정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녹지 공간화 했다.

한편 서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나무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나무심기사업의 하나로 이번에 추진하는 아파트 담장 없애기 사업은 도심지 대로변 아파트 담장이 대부분 콘크리트나 철제구조물로 설치돼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어 이를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수정타운아파트 관리소장은

“오늘날의 사회가 양극화되고 이기적인 분위기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 담장 없애기 사업이 사회통합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많은 역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다른 아파트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구청 관계자는 “도심지 생활녹지 공간 확보와 함께하는 문화 형성을 위해 민간 녹지시설을 주민들이 열린 공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담장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서구, 대전서 유일한 『청렴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

국가 청렴위 측정결과 금품향응제공 전무

서구가 국가청렴위원회 주관 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대전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청

렴위에 따르면 청렴도 우수기관은 업무청렴도 9.00점 이상이면서 금품향응 제공이 한 건도 없는 기관으로 한국갤럽과 한국리서치 등 두 곳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난 2007년 10월1일부터 2007년 11월29일까지 약 2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다.

이 두기관의 조사는 해당기관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기관 청렴도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와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 등을 합산해 최종 결정한다.

서구는 주요 대민·대 기관 업무 등에 대한 청렴도 측정 결과 10점 만점 기준 9.07점을 받았으며 금품향응제공과 관련해 0%로 나타나 민원인들이 편하게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가 청렴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함께 자체 청렴도 측정과 분석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이어졌다.

서구는 이 같은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행정의 공정 및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한 피드백 시스템 구성을 통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가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평가결과 서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차에 걸친 서면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하여 시·도별 우수 지자체를 선발하고 우수시책을 수범사례로 육성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저출산 대응정책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했다.

서구는 출산장려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다중이 이용하는 부서에는 '임산부 우대창구'를 운영하여 임산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외함께 임산부 및 미취학자녀 동반시 승용차 차량부제를 해제하고 신생아·영유아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영유

아 양육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등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한 결과 그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연대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출산장려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중부권 최초로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지역균형 발전 차원 정림동에 상반기 중 완공

중부권 최초로 정림동에 어린이전용 도서관이 들어선다.

서구는 올 상반기까지 모두 13억 4800여만원을 투입해 정림동 127-5번지에 어린이전용 도서관을 건립한다.

도서관은 부지면적 859.5㎡, 연면적 530.37㎡,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며 초등학교 학생과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1층에는 열람실과 디지털자료실, 그림책방, 이야기방이 들어서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2층에는 열람실이 설치돼 조용한 분위기에서 독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도서관 바닥을 온돌로 조성해 기존의 도서관

과 차별화된 전문적인 어린이 도서관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가 도서관을 건립하고 추후 세부적인 운영은 갈마도서관이 맡기로 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서울 노원구, 인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용인시 등에 건립돼 있지만 중부권에 들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전거 타기 좋은 유성 '벨리브' 제 시범운영

유성구는 유성온천역에서 충남대 정문 사이의 1km에 달하는 생활교통형 자전거 전용도로의 준공시점에 발맞추어 유성의 '벨리브' 제를 시범운영 한다. 사용방법은 구민들에게 자전거 카드를 나눠주고 대여와 반납을 중앙운영센터가 조절통제 하게 된다. 3개월 예정으로 20대 정도의 자전거로 시범운영되며, 시범운영을 통해 데이터가 모아지면 이후에 5,000대 까지 늘린다고 한다. 구간은 유성온천역에서 충남대 까지와 충남대에서 유성구청 까지이다. 이와함께 자전거에 센서를 달아 이를 감시하는 장치를 곳곳에 설치해 자전거가 분실되었을 때 색출이 가능토록 하며, 자전거의 무게도 파리의 20kg에 비해 가벼운 13kg 정도로 줄인다.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학교,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들 간에 자전거주차장이 신설되고, 공용자전거대여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프랑스식 '벨리브' 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국적인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건강에 좋고, 경제적이며, 교통난과 주차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환경에도 좋은 자전거의 대중화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자전거타기 좋은 유성, 썩썩 달려보자.

맞춤형 정보화 교육 인기 주민들 다양한 컴퓨터 활용 익히기 열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정보화 교육이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올 들어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본적인 소양이 있거나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해 59세 이하로 구성된 주민정보 교실반을 운영한 결과 13회에 걸쳐 400여명이 참여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정보교실반의 경우도 10회에 걸쳐 350여명이 수료하는 등 연령별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에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과정 속에는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생활문서편집, 한글2002 ITQ,

엑셀, 파워포인트, 내홈페이지 만들기, 나만의 카페만들기, 디카를 이용한 포토샵 등 정보기술 습득에서 활용부문까지 폭넓은 분야를 다뤄 선택의 폭을 넓힌 점이 크게 돋보였다.

진동규 유성구청장 「한국신뢰경영 CEO 대상」수상

경향신문사 주최, 국가청렴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원

진동규 유성구청장이 경향신문사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신뢰경영 CEO 대상' 공공 행정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성구에 따르면 진동규 구청장은 12월 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민국신뢰경영 CEO 대상' 시상식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창의적인 마인드로 경영비전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공공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삶의 질 최고도시 청정유성 건설이라는 일관된 시책을 비롯해 정부시책사업의 부단한 유치노력, 일과 현장중심의 조직시스템 구축 등 미래 지향적 도시건설에 기여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25만 구민의 열정과 땀으로 이뤄낸 결실이다”며 “유성가족의 믿음과 연원에 부응하여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여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사가 주최하고 국가청렴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신뢰경영 CEO대상'은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국민에게 존경받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드높인 최고의 경영인을 선정해 경영이념과 가치관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되었다.

